

土鼓에 대하여

鄭 明 鎬

I

韓國古典중에 樂器書인 樂學軌範에 現存되지 않는 古代樂器중 하나인 土鼓에 對한 『土鼓築土爲鼓也』란 興味로운 句節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興味로운 土鼓로 생각되는 한 例를 崇田大學校와 慶熙大學校 博物館에서 본 적이 있으므로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九六六年夏八月下旬頃에 崇田大學校 博物館에서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所在 無紋土器時代의 住居址를 發掘調査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 여가를 얻어 二次에 걸쳐 發掘現場을 見學할 機會가 있었다. 發掘址를 見學할 當時 住居址 內에서 發見된 여러 種類의 遺物중에 土器의 口緣部바로 밑쪽에 一列로 구멍이 뚫려 있는 破片을 注意깊게 본 적이 있었다.

또한 數年前에 慶熙大學校 博物館에서도 同一系統의 完全한 深鉢形列孔土器로서 이는 京畿道 廣州郡 東部面 漢沙里에 所在하고 있는 無紋土器遺跡에서 採取하였다고 한다.

以上的 遺跡의 다른 報告에 의하면 漢江流域의 廣州郡 九川面德豐里, 京畿道 坡州郡 玉石里, 京畿道 臨津面堂洞里 等地에서 土器의 口緣部端에 一列의 列孔이 設置된 破片이 發見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平安南道와 黃海 兩道地方을 除外한 全韓半島 곳곳의 無紋土器

遺跡에서 列孔土器系가 發見되고 있음을 속속 報告되고 있다.

이와같이 土器의 口緣部에 施工되어 있는 列孔土器系 破片은 比較的 넓은 地域에서 發見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系統의 土器야 말로 先史時代에 流行되었던 器形임을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까지 이 列孔土器系에 對한 研究는 겨우 編年과 型式分類 程度의 進展만이 있을 뿐 아직까지 이 系統의 容器에 對한 技能과 解析은 아직 不進한 狀態라고 본다.

이에 對하여 論題에서 提示한바와 같이 技能과 用途面에서 樂器의 一 種인 祖型土鼓資料로 推定됨으로 이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II

從前까지만 하더라도 列孔土器의 用途面에 對한 解析은 懸垂로 보는 傾向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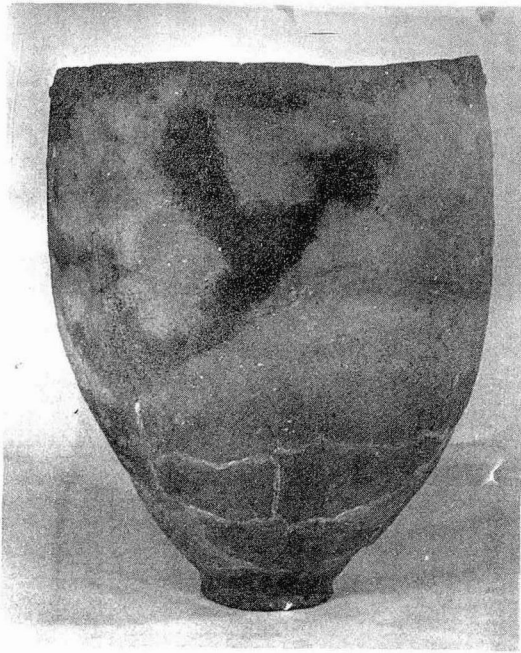
이 列孔系土器를 懸垂로 使用된 土器로 보는데 對하여 若干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列孔系土器를 懸垂로 본다면 이 土器를 달아 매기 위한 施設인 줄거리 구멍의 數가 必要以上 많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即 줄거리 구멍을 口緣周圍 全面에 施工할 必要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된다.

왜냐 하면 土器를 달아 매기 위한 줄거리 구멍의 必要한 數는 많을 경우 四個處 혹은 二個處 程度만 있어도 充分한 數字가 되며, 安全하고 使用하기 便利한 施設은 三個所의 구멍만 뚫려도 滿足한 數字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半島에서 發見된 列孔土器에 뚫려있는 구멍을 살펴보면 口徑二·九cm 되는 深鉢形土器로서 口緣 밑에 直徑〇·五cm 되는 구멍을 三~四cm 정도의 간격으로 施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器 孔 土 列

이와같이 그릇입술(口緣部)周邊에 施工되어 있는 구멍이 必要以上 많
이 돌려 있는 것은 다른 目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질 그릇(土器)의 아구리周圍에 촘촘히 구멍을 뚫은 것은 懸垂를 하기
위한 구멍으로 볼수 없다면 어느 다른 目的을 위하여 만든 구멍으로 보
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懸垂를 위한 目的이 아니라면 이는 무엇을 위해 施設한 것일까?
懸垂外에 다른 의견은 懸垂와 비슷한 用途로서 밀빠진 자루밑에 불
쳐 곡식의 씨앗이나 곡식가루 열매나 열매가루를 保管하는 자루밑으로
생각할 경우도 있다.

即 당시에는 아직 직조의 형식이 발명되기는 하였으나 헌잡자루가 아
닌 가죽자루밑에 질그릇을 달아 불치기 위한 바늘실구멍으로 생각할 수
도 있겠다.

그 이유는 이 列孔土器 속에 當時 음식물로 보이는 곡식과 열매가 들
어 있는 例가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即 자루달린土器에 곡식의 씨앗이나 가루 또는 열매나 열매가루를 넣
은 후 이 가죽자루를 한갓진 지붕밑이나 처마밑에 달아매어 좁은 공간
이나 습기찬 바닥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用途를 위해 굳이 자루밑에 土器를 달 필요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目的은 날그릇을 불에 구울때 그릇속이 잘 익도록 하는가 또
는 그릇을 얹어 구울때 그릇속에 들어 있는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한 시
설로 볼수도 있겠으나 굳이 그렇게 많은 구멍이 있을 必要는 없는 것이
라 하겠다.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驛三洞과 漢沙里에서 出土된 深鉢形 列孔土器
系統의 구멍은 懸垂키 위한 施設로 볼수 없으며 밀빠진 자루밑 그릇으
로도 不恰當하며 그릇을 익힐때(구울때) 施工上 必要한 구멍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이 深鉢形列孔土器는 樂學軌範에 보이는 土鼓系에 屬하는
先史時代의 樂器의 一種인 土鼓附屬資料인 鼓體(身)로 볼수 있는 可能
성이 많다.

即 祖型土鼓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深鉢形列孔土器를 土鼓로 보고자 하는 理由는 다음 몇가지 特徵을 들
수 있다.

京畿道以南地域과 以北地域에서 發見되는 深鉢形列孔土器의 모양과
양식이 서로 若干의 相異점이 있음은 注目되었다.

前者의 경우 그릇의 입술은 곧은(垂直口緣) 입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밀부분은 낮고 좁은 굽이 달려 있다.

이 질그릇을 북(鼓)의 一種인 土鼓로 볼때 이 질그릇은 鼓體가 되어
야 할 것이다.

一般的인 북(鼓)은 面과 體로 構成되어 있는데 面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體는 普通 나무로 만든 甬을 使用하고 있다.

面인 가죽은 體의 아구리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固定材로는 칠뭇을 사용한다.

못을 박는 이유는 북면을 붙이는 役割도 되지만 소리가 잘 나도록 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鼓面을 팽팽하게 멩겨 좋은 소리가 나게 하도록 조 절하는데 利用되기도 한다.

以上과 같은 原理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은 鼓體의 種類에 따라 木鼓인 鼓와 土鼓로 大別되고 있다.

木鼓는 鼓體가 木製甬으로 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一般의 鼓(북)이라 稱하며 土鼓는 鼓體가 土材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곳에서 論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土鼓로서 土鼓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것은 鼓面을 固定하는 技術的인 製作技術을 들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木鼓인 경우에는 鼓面을 팽팽하게 固定시키기 위하여 鼓體의 아구리 주위에 못을 촘촘히 박을 수 있겠으나 土鼓일 경우에는 못을 박을 수 없음이 하나의 결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土製鼓體面을 固定할 때 못을 使用하게 되면 못을 박는 순간에 體는 破壞되고 말 것이다.

이 破壞現狀을 防止하는 方法으로서 必然的으로 發生한 技法이 바로 深鉢形列孔土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만약에 鼓體에 鼓面을 設置할 때 못을 박지 않을 경우 이것을 대처할 方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創案해 낸 것이 바로 아구리 주위(둘레)에 구멍을 뚫지 않고서는 도저히 鼓面을 鼓體에 固定시킬 方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土製인 질그릇의 아구리 둘레에 구멍을 뚫어 가죽을 씌우고 구멍에 가죽이나 심줄로 일거매는 施設로 삼았을 것이다.

특히 아구리 둘레에 마련된 구멍을 촘촘히 뚫을 수록 북면은 고르고 팽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에서 論하고저한 深鉢形列孔土器의 구멍이야말로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좋은 實例가 되지 않을까 한다.

深鉢形列孔土器가 發生하기 以前에 土鼓의 경우는 어떠한 모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初期無紋土器時代에 土器形態의 特徵은 곧은 입술을 갖추어 있고 밑이 뾰족한 모양이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곧은 입술을 갖인 토기의 아구리를 가죽으로 씌우고 고정시킬 때 口緣周圍에 구멍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심줄이나 가죽끈으로 동여매어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가죽을 팽팽하게 당길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곧은 입술이기 때문에 使用時에 벗겨질 可能性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려는 方法을 開發한 것이 바로 列孔土器系의 出現이 아닐까 한다.

列孔土器系를 土鼓로 發展시키면서 또 하나의 결점이 생겼을 것이다. 그것은 口緣部에 구멍은 뚫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弱해서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구멍을 뚫어 북을 만드는 것도 수고스러운 일로

생각된데서 土器製造術의 發達과 器型의 變化로 後者和 같은 形態의 土器모양으로서 土鼓가 만들어 졌을 것이다.

即 京畿道以北地方에서 出土되는 列孔系土器의 出現이라 하겠다.

이 後者の 特徵은 입술이 外反되어 있을뿐 아니라 입술 둘레에 마련한 구멍은 形式的으로 完全히 貫通시킨 例는 거의 없으며 半貫通式이란 점이다.

筆者는 咸鏡道地方에서 發見되는 이 列孔土器를 또한 土鼓로 보고자 하여 前者에서 發展改良된 樣式으로 보고저 한다.

그 理由는 前述한 바와 같이 前者의 경우는 입술이 곧기 때문에 북면(鼓面)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술 둘레에 구멍을 뚫어 固定施設로 삼았을 것으로 推定하였다.

그러나 이는 입술 주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입술部分이 약하다는 결점이 있는 것이 흠이었던 것이다.

後者の 경우는 입술이 外反되어 있기 때문에 鼓面인 가죽을 팽팽하게 당기고 固定시키기 위하여 外反된 입술밑 턱을 利用하여 이곳까지 감쳐

진 가죽 끈을 심줄이나 가죽줄로 동여매 빠지는 것을防止할 수 있었던 것이며 동시에 견고한 口緣을 갖인 土鼓로 發展시키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同時에 이를 계발한 靑銅器人들은 樂器라는 特殊한 觀念하에서 傳統과 習慣의 遺習으로서 無形之物의 貫通式 傳統을 繼承하여 半貫通式 列孔土器로 發展할 수 있게 되었음을 推定할 수 있다.

以上으로써 미약 하나마 列孔系土鼓로부터 半貫通式列孔系土鼓로 發展하게 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것으로서 列孔系土器의 구멍은 鼓面을 평평하게 固定시키기 위한 施工施設로 보고자 하는 동시 土製土鼓의 始祖로 推定하고자 한다.

III

土鼓에 對한 우리나라의 古典文獻資料로서 最古의 것은 高麗第二十三代 高宗時에 文臣이며 佛敎學者인 李奎報의 著書인 東國李相國集 第二卷 考巫篇에

「云云 小臣爲國誠自喜 日游帝城便淸淨 瓦鼓喧聲無我云云」

의 句節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巫具중에 土製인 瓦鼓가 있었던 事實을 暗示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朝鮮朝 第二十一代 英祖, 正祖時에 編纂된 增報文獻備考에 의하면

世宗十二年 朴堧上疏曰 自古先農之樂皆用土鼓 今用路鼓非制也

謹按禮運註云 土鼓築土爲鼓也

周禮註杜子春云 以瓦爲匡以革爲面 陳陽則以禮運爲據而 不取子春之說然雅樂之器 土音之屬 皆以瓦爲之 埴缶之類 皆是也

上古築土之鼓 旣不能倣則 姑依子春之說 陶瓦爲匡 冒革爲面 以代上古土鼓之用從之

라 하였으며 以下 句節은 世宗實錄 卷百二十八 五禮吉禮序例樂器圖說의 內容과 同一하다.

世宗實錄 樂器圖說의 內容을 볼 것 같은면

樂書云 禮運夫禮之初 始諸飲食 黃桴土鼓

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 土鼓黃桴 伊耆氏之樂也

蓋樂以中聲爲本土也者 於位爲中 益於氣爲冲氣 則以土爲鼓 以篥爲桴 所以達中聲者也

猶若可以致其敬於鬼神也

然土鼓之制 窪土而爲之 故禮運之言 土鼓在乎 末合之前 與壺涿氏炮土之鼓異矣

杜氏謂以瓦爲臯陶鼓木 以革爲面 不稽禮運之過也

라 함을 보아 土鼓의 起源과 用途 製作過程 材料 音樂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樂學軌範 第七卷四 杖鼓條에 의한 것 같은면

文獻通考云 羯鼓杖鼓腰鼓 漢魏用之 大者以瓦 小者以木類 皆廣首纖腹 宋蕭史所謂細腰鼓是也

右擊以杖 左拍以手 後世謂之杖鼓 其聲和壯而有節也

按造杖鼓之制 其腰木及漆布爲殼者最好 磁次之瓦 則子好 茶黑或朱兩面 各用圍鐵 大面以白生馬皮爲之 小面以生馬皮爲之 鈎鐵造以龍 入銀

絲或用豆錫縮繩用紅眞絲爲三甲 或用紅木 綿絲縮綬用青紫 斜皮依樂聲 高下進退調 大面用左手拍之 謂之鼓 或俗作

小面用右手杖擊 謂之鞭 或俗作 杖擊時以左手 按鼓面使 鞭聲 淸高 淸高 淸高 淸高 兩面同擊 謂之雙

或俗作 杖後 以杖暫擊 俾作搖擊 謂之搖 或俗作 唐樂響樂並用之 라하여 世宗實錄의 樂器圖說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資料, 用途, 名稱使

用方法 使用處 등을 밝히고 있으며 土製杖鼓도 있었음을 暗示하고 있다. 中國側 文獻資料에 의한 것 같은면 禮記에

明堂位 葦籥是伊耆의音樂

註 以葦爲籥 未有截竹之精故也 葦籥爲竹籥的前驅 正猶土鼓爲木鼓與銅鼓的前驅一樣

土鼓黃桴 葦籥伊耆氏之樂也

此明魯用 古代之樂及四大樂器土鼓 謂樂土爲鼓 黃桴以土塊爲桴葦籥謂截葦爲籥

格致鏡原 卷四十七 樂器類三

禮記 伊耆氏黃桴土鼓

注 土鼓以瓦爲匡 以葦爲兩面可擊也

以上の資料에 依할것 같으면 土鼓의 創始者는 禮記에서 밝힌바와 같이 伊耆로서 이는 神農이 되었다는 說로 孔穎達이 말하고 있다.

田邊尙雄의 著 中國音樂史에 의할 것 같으면 土鼓는 土器時代에 使用되었던 樂器로서 흙으로 體를 만들고 葦는 羊牛馬等의 것을 使用하였던 事實을 알려주고 있음을 찾아 볼수 있다.

그러나 鼓體樣式에 對한 言及이 결여 되어 있어 그의 모양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다만 器形에 對한 暗示는 世宗實錄 卷一百二十八 樂器圖說에서 밝힌 바와 같이 禮運夫體之初 始諸飲食 黃桴土鼓라 한 것으로 미루워 食器形의 것으로부터 土鼓의 모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 된다.

더우기 禮記에서 찾아 볼수 있는 바와 같이 樂器중에서 土鼓는 神農이 된 伊耆의 創案임을 孔穎達의 註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神農과 關係를 맺고 있는 土鼓야말로 農耕社會에 使用되고 있었던 食器類를 參考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中國의 農耕社會는 이미 新石器時代末期를 걸쳐 青銅器時代에 이르는 동안 樂器類도 形態가 갖추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樂器類의 形態가 갖추어진 것중에 土鼓의 形態도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며 이 形態가 바로 食器類를 利用한 深鉢形列孔 질그릇系統으로 부터 開發되지 않았나 한다.

이 深鉢形列孔 질그릇이 生産되었던 韓國社會는 또한 初期農耕社會 初期段階時期로서 中國農耕社會가 傳達되었던 時期로 보고저 한다.

IV

新石器時代末 青銅器時代初期에 生産된 深鉢形列孔 질그릇은 前述한 바와 같이 입술둘레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바로 鼓面인 가죽을 걸쳐 매는 시설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양이 現在도 볼수 있는 장고의 切半部를 떼낸 모양과 비슷한 것으로 미루워 바로 이 深鉢形列孔 질그릇系에서 發展된 것으로 보겠다.

使用하는 方法은 이 질그릇을 거드랑이에 끼고 使用하거나 가랭이에 끼고 부을 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으로 深鉢形列孔 질그릇이 祖型土鼓의 可能性에 對하여 考察하여 보았으며 아울러 問題提起를 제시하는 바이다.

(원광대학교 전임강사)